

호남지역 국민연금 실태 살펴보니

# 1인당 월 8만원 내고 17만원 받는다

호남지역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1인당 월 평균 8만3천원 가량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2배가 넘는 17만4천여 원을 연금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남지역 농어민,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들은 수입이 적거나 특례 혜택자들이 많아 '직장(사업장)가입자'에 비해 3배나 적은 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납부율도 직장가입자에 비해 20%이상 낮았다.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광주지역 본부에 따르면 호남·제주지역의 국민연금 총 가입자는 167만5천명으로, 이 가운데 지역가입자가 60.5%인 101만3천명, 직장가입자가 65만8천명(39.2%), 임의가입자가 4천명으로

직장인들, 자영업자보다 납부액 3배 많아

수급률은 수입적어 타지역보다 16% 높아

집계됐다. 이는 전국대비 9.2%에 달하는 수치로 전국 평균에 비해 직장가입자가 10.6%포인트 낮은 것이다.

징수현황을 보면 총 11조5천391억 원을 고지해 92.9%인 10조7천254억 원을 징수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직장가입자로부터는 고지 보험료의 99.1%인 8조1천427억원을 걷어들이는데 반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로부터는 77.7%인 2조5천827억 원밖에 징수하지 못했다.

국민연금이 관내에서 거둬들이는 연금 보험료는 월 평균 1천401억원(직장가입자 973억원, 지역가입자 428억원)으로 1인당 납부 금액은 평균 8만3천641원꼴이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는 1인당 14만7천872원을 내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4만2천250원을 내 직장가입자의 납부 금액이 지역가입자의 3배를 넘었다.

지급현황을 보면 관내에서 32만9천636명이 월 평균 574억5000만원을 연금으로 받아 1인당 수급액이 17만4천146원으로 납입액의 2배를 초과했

다. 이 가운데 대다수인 27만2천81명(82.5%)이 '노령연금(60세이상)'으로 448억5천800만원(78.1%)을 받았고 나머지는 유족연금 13.8%, 장애연금 4.4% 순으로 지급됐다.

또 농어촌을 중심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호남·제주지역의 특성상 전국 대비 수급자 비중이 가입자 비중(9.2%)보다 훨씬 높은 16.3%를 차지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가 내는 납입 보험료가 적은 이유는 지역가입자들 중에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농어촌지역 비중이 높고, 45세이상 5년이상 납부시 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특례 대상자가 많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광주 첨단산업 도시 되려면 광산업 성장·본궤도 올라야”

### 장병완기획예산처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광주가 서남권의 첨단과학·산업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광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자생적 성장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회장 이재형) 초청으로 18일 광주에 온 장 장관은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전환기 재정운영 전략, 산업분야 지원을 중심으로'라는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 장관은 이날 "광주광산업의 경우 전국 4대 지역전략산업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성공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추세대로 광산업이 성장한다면 오는 2010년에는 세계 5위의 광산업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

다했다. 이와 관련, 장 장관은 "이미 구축된 광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광EXPO 2009'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국제 광산업 도시로서 광주의 정체성이 확립된다"며 "향후 광클러스터의 육성·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 장관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호남고속철도사업 ▲광주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광주 도시외곽순환 고속도로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장 장관은 광주과학기술원 학생을 대상으로 '전환기의 재정운영 전략-R&D 투자를 중심으로'라는 내용의 특별강연을 가진 바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광주 조달청 - 디자인센터

### 조달서비스 이용 업무 협약

광주지방조달청(청장 양준호)은 17일 광주디자인센터 회의실에서 디자인센터(원장 이봉규)와 물자·용역·시설관련 조달서비스 이용에 관한 업무협력약정(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디자인센터는 용역 및 물품구매 3천만원이상, 시설공사 1억원 이상의 사업발주를 할 경우 광주지방조달청으로부터 입찰, 계약과 관련한 자료, 정보, 업무상담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됐다.

또 광주디자인센터는 조달서비스 이용에 대해 조달수수료를 10% 할인 받는 것을 비롯해 각종 사업의 제도적 지원과 신속한 전담서비스(Fast Track Service)등을 제공받게 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전남도소상공인지원센터

### 경영지도 등 상담사 모집

전남도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이끌어 갈 상담사 약간명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전문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이거나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자격증을 가졌거나, 2년 이상의 기술지도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57세 미만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이력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순천시 연향동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업무지원팀(061-729-0612)으로 하면 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아시아나, 男직원 대상

### 이미지메이킹 교육 운영

아시아나항공은 남자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미지메이킹 교육 과정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과정의 명칭은 '꽃보다 남자'로 남자의 이미지도 경쟁력이라는 판단 아래 기존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미지메이킹 과정을 남자 직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과정은 패션 코디네이션과 헤어 스타일 연출법, 피부관리법, 메이크업 등으로 구성됐으며 박영실 서비스와위아카데미 원장, 김현수 헤어디자이너 등 유명 사외강사들이 수강생 개인별 이미지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모범음식점 맞아?

### 식품위생법 위반 등 전남지역 60곳 적발

용자지원, 물품지원, 상수도료 감면 등 다양한 형태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백 여 원의 각종 지원을 받는 모범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해마다 적발되고 있어 보다 엄격한 자격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운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현황(2003~2007년 7월)'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는 2003년 165건, 2004년 266건, 2005년 279건, 2006년 208건, 2007년 7월 현재 219건 등으로 거의 해마다 200건 이상 적

발되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30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181건, 대구 125건, 인천 87건, 부산 61건, 전남 60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 위반 혐의를 보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 389건으로 가장 많고,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 207건, 음향기기 설치 및 폐기물 용기 설치 기준 미준수 183건, 식품보관기준 위반 9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0건, 허위 과대광고 55건, 영업장 무단확장 48건 등이었다.

한편 조사 기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모범음식점 1천137곳 중에서 560곳은 모범음식점 자격이 취소됐으며, 575곳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선주·항만물류협 등 해양수산업계 여수 엑스포 유치기원 40억 기탁



한국선주협회, 한국항만물류협회, 한국해운조합, 한진해운 등 해양수산업계 및 단체들이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40억원을 기탁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오후 청사 9층 회의실에서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 이윤복 2012년 세계엑스포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이국동 항만물류협

회장, 박정원 한진해운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 유치위원회와 해양수산업계 및 단체 간 유치후원 협정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양부와 유치위는 40억원의 후원금으로 유치 열기 확산을 위해 방송과 신문과 지하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여수세계엑스포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이벤트와 음악회 등을 열 계획이다.

/연협뉴스

### 남북 공동 디자인 백두산 우표 발행

우정사업본부는 우리 민족의 명산인 '백두산'을 소재로 '한국의 명산 시리즈(네 번째 묶음)' 4종을 발행했다. 우표 가격은 250원으로 18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디자인은 삼지연·천지·형제폭포·리명수폭포로 백두산의 사계절 풍경을 담고 있다.



이번 우표는 북측의 사진작가 김용남의 '삼지연', '형제폭포' 두 작품과, 남측의 사진작가 이정수의 '천지', '리명수폭포' 두 작품이 사용된 최초의 남북 공동 디자인 우표이다.

/연협뉴스

## 가축 RFID 국가표준 만든다

(무선인식기술)

### 광우병·구제역 신속대응 소비자 '먹거리' 불안 해소

안전한 축산품을 제공하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축 RFID(무선인식)관리체계 국가표준으로 제정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18일 동물 RFID 규격 3종을 연내 제정할 예정이다. 광우병과 구제역, 조류독감 등 치명적인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이력 추적하기가 가능해져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인 방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또 사육된 가축의 RFID 정보를 도축과 유통과정, 유통단계에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먹거리

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도 상당수준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물 RFID란 가축과 야생동물, 조류 등 동물에 종과 연령, 원산지 등을 기록한 태그를 부착하고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해당 정보들을 무선으로 인식하는 기술을 말한다.

동물 RFID 관련 국가표준 규격이 마련되면 지금까지 농림부와 애견협회, 마사회 등 동물 관련 단체에서 각각 다르게 사용해오던 RFID 태그 등을 통일화함으로써 체계적 가축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바꿔 파는 등의 행위를 사육단계부터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기술표준원은 내년까지 동물 RFID 관련 태그와 관독기의 정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국가표준 5종을 추가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협뉴스

**1년 복리정기예금 연수익률 5.85% (확정금리)**  
 업조타운 1층(업원 안) ☎ 0621233-0717  
 여수지점 ☎ 061660-0114  
 순천지점 ☎ 061724-3399

**국내 판매 1위 // 소비자 만족도 1위 //**

소니가 만든다... 소비자에게 다가오는 최첨단... 인기해터의 왕중 왕... 혁신기술과 한걸음 앞에 남방까지

무등산업

**무등산 자원의 사생활**

高品質 장풍일본서전풍경 유전

정식가격

카니바 놀이	22,000
삼색 놀이	18,000
두서백 놀이	18,000
무등산자연휴양림 놀이	24,000
무등 놀이	23,000
무등산리조트 놀이	176,000

복합용 다목적 시설입니다.